

일 주 문

국제교류협력센터 준공
국제개발기구(NGO) 지구총총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은 1월 17일 캄보디아 따깨오주 삼닷뵤안 마을에서 청원사와 함께 국제교류협력센터를 준공한다.

포교사교시 2월 17일 실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2월 17일 오전 9시 서울 동국대와 대전 문교고 등 전국 8개 교사에서 제18회 포교사교시를 실시한다.

사찰음식 연구소 기공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구암 23일 '화엄교육장'과 '사찰음식 연구소' 기공식을 병행했다.

불교스카우트 모집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1월 31일까지 불교스카우트 단원을 모집한다. 매일 첫째주 일요일 대집회가 열린다.

코칭템플스테이 무료진행
보은 법주사 주지 현조 스님은 '멈춤 & 도약'을 주제로 휴학생 및 구직 젊은이를 위한 일대일 코칭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진행한다.

스마트 힐링 선수련회 개최
구례 화엄사 주지 종삼 스님은 2월 1~3일 화엄사 일대에서 스마트 힐링 겨울 선수련회를 개최한다.

정초 산림기도 봉행
순천 조계사 주지 무상 스님은 2월 12~18일 웅진당에서 계사년 새해 맞이 정초 산림기도를 봉행한다.

툼비합창단 30주년 음악회 열어
대구 은적사 주지 허주 스님은 구암 24일 대구 프린스 호텔에서 '툼비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개최했다.

자비의 교복 나누기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복 스님은 구암 24일 대남 초등학교 등 4개 초등학교에서 기초생활수급 학생 60명에게 1인당 30만원 상당의 교복 상품권을 전달했다.

장애인 가정돌봄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선교종 종정 혜종 스님은 구암 26일 부산일보 10층 소강당에서 '제9회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돌봄 지원금 전달법회'를 개최했다.

수륙재 원형보존·현대화에 '최선'

어산 어장 동주원명 스님
경제어산 무형문화재 지정



송암 스님에게 사사 받아
50년간 어산 원형보존에 힘써
지난해 전승원 교육기관 인정
인제양성과 콘텐츠 개발 매진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해야겠다는 발원을 세우고 오로지 50년을 어산(법해)에만 전념해왔습니다. 선공이 주축을 이루는 조계종에서 이런 원력을 세워 실천해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벽두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동주원명 스님이 1월 3일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43호 경제어산(京制魚山) 지정 및 보유자로 인정됐다. 스님은 지난 50년 동안 경제어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알리는 데에 최선을 다했다.
“경제어산은 서울경기지역 불교의식에서 쓰이는 소리입니다. 귀중한 문화유산이기에 그 보존 가치는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죠. 이번에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인정받은 만큼 이를 알리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의 전통 재의식은 어산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이를 크게 범음(梵音)과 범패(梵唄)로 분류한다. 이는 1973년 범패란 명칭으로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1987년 영산재라는 용어로 재지정됐다.
스님은 독보적인 최고 어장이었던故 박송암 스님에게 경제어산을 사사받았다. 특히 스님은 경제어산의 결정체인 안채비 소리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륙재를 송암 스

님으로 전수받아 지금까지 전통을 보존해 오고 있는 장본인이기도 하다.
선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조계종 스님으로서 소리를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은사 스님이었던 대은 스님의 뜻에 따라 누구보다 최선을 다했다. “1964년 벽을 스님에게 경제어산을 처음 배웠어요. 그때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스님네들이 재의식을 배우는 것은 당시

의 필수 항목이었죠. 이후 저희 은사 스님께서 송암 스님에게 저를 맡기셨어요. 저는 스님의 결정 따라 봉원사에서 송암 스님에게 전수를 받았어요. 아침 7시면 스님이 그곳으로 오셔서 매일 10~20분을 가랑의 소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밤 10시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소리를 전수를 받았어요”
특히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은 학계와 정부에서 경제어산이 불교의식을 넘어 전문적인 소리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는 불교 문화 전승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예정이다. 이에 스님은 경제어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륙재 원형 보존과 현대화에 더욱 매진할 예정이다. “제대로 된 수륙재를 하려면 3일이 걸립니다. 우선 이에 대한 원형을 잘 보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더 나아가서는 이를 간소화 시켜 현대인들에게 맞는 수륙재를 개발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일이지요”
스님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은 지난해 조계종특수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를 통해 스님은 후학들을 양성하고 수륙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스님은 “영산재가 태고종의 산물이라면 수륙재는 조계종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또한 후학 양성은 물론 국제학술대회 등을 개최해 21세기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인천불교총연합회 신년 하례법회



인천불교총연합회(회장 덕해)는 1월 4일 구월동 인천불교회관 4층 대법당에서 '인천시민 안녕 및 아시안게임 성공기원 신년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회장 덕해 스님(황룡사 주지)을 비롯하여 명예회장 일초 스님(삼계종 총무원장), 탄공 스님(보화정사 회주), 경원 스님(일봉선교종 총무원장) 등 인천불교 지도자 스님 등이 참여했다.
회장 덕해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온 인천불교총연합회가 앞장 서 인천 발전과 다가오는 아시안게임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호국불교조계종 합동 가사불사 집안



(사)호국불교조계종(총무원장 유심)은 구암 8일 총무원인 부산 초량동 관음정사에서 합동 가사불사 집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총무원장 유심 스님, 총회의장 일봉 스님을 비롯한 종단 임원 및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했다. 법회에서는 종단 각 사암별로 불사한 가사를 총무원 대법당인 관음정사에서 합동 집안했다.
총무원장 유심 스님은 축사를 통해 “가사불사는 공덕 중의 공덕이며 이를 받는 수행자는 항상 그 중함을 알아 중생을 위로하며 먼저 내 마음을 밝혀 바로 보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051)468-5657 노덕현 기자

“재가불자 양성평등의식 향상되길”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양성평등 가이드북 발간



“남녀가 평등하다고 가르친 부처님 말씀 새기며 서로가 차이를 인정해 나가길 바랍니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는 지난해 12월말 지원금 전달 양성평등 가이드북인 <부처님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실천하기, 어렵지 않아요>를 펴냈다.
이 가이드북은 평소 불자들이 신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남녀차별적인 인식들을 살피고 부처님이 강조한 평등으로 유도하는 지침서다.
김영란 소장은 “부처님은 남자에게 예속된 삶을 살았던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출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평등주의자”라며 “조기경전에서 부처님이 여성의 성불을 말한 내용을 발췌해 불자들이 새길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양성평등 가이드북에는 양성평등의 개념, 그리고 차별의 요인이 되는 성역할의 고정관념과 불교의 성평등 사상 및 신생활과 일상에서 일어나는 차별사례를 실었다.
이내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김영란 소장은 “많은 여성 불자들이 국내 불자연구의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많은 차별을 느낀다고 한다”며 “이번 지침서에는 그런 불편사례 리스트를 만들어 신고 다 같이 공유하면서 생각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이 설명하는 불편사례는 사찰 법당 자리를 두고 남녀를 차별한다거나, 종단의 주요 직무를 비구 스님만 맡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 등도 포함된다.
이밖에 지침서는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적관점에서 여성뿐 아니라 남성도 처한 상황에 따라 불편함을 느끼는 점들을 짚어보는 내용도 마련했다.
김영란 소장은 “양성평등 가이드북의 최종본이 나오면 교구분사를 중심으로 신도들에 배포할 계획”이라며 “지침서를 통해 재가불자들이 생태생명의 존엄성에 근거한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국대, 신춘문에 당선자 6명 배출

동국대가 올해도 신춘문에 당선자 6명을 배출하면서 문학 전통을 이어갔다. 동국대는 2013년 중앙일간지 신춘문에에서 6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동국대는 1월 1~2일 발표된 중앙일간지 신춘문에 당선자 발표에서 △동아일보 단편소설 부문=송지현(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한국경제 장편소설 부문=최지운(문예창작학과 졸업), △동아일보 문학평론 부문=임세화(대학원 국문학과 석사과정), △조선일보 문학평론 부문=이선희(문화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 석사과정), △서울신문 문학평론 부문=유인혁(대학원 국문과 박사과정 수료) △세계일보 문학평론 부문=기혁(대학원 국문과 석사과정 재학) 등 모두 6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보였다. 노덕현 기자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1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범위증이 주어집니다.
2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3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4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5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법사과정, 불학연구원과정, 대법사과정,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출강반, 통신반
입학자격: 불심이 돈독한 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법사과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대법사과정 = 2년(교과목 및 범음·범패),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서울 본 대학, 부산교육원, 제주교육원
원서 교부 및 접수: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부산교육원(☎051-466-1959)·제주교육원(☎064-751-1959)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 (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02)737-5305
02)733-1959 720-1836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2013년 1월 중
◆개강일시: 2012년 1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